

## A Government Approach to Vocalic Processes

허 용  
한국방송대학교

### 1. 머리말

지난 10여년 사이의 음운론에서 제기된 새로운 이론 중의 하나는 음운의 내적 구조 (Internal Structure of Phonological Segments)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음운현상을 몇 개의 자질을 이용해 규칙으로 나타내는 이론 (rule-based approach)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데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서 / ㅏ/ 모음이 / ㅣ/ 앞에서 / 애/로 변하는 현상 (예: 담장이 --> 담쟁이)을 규칙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

[ + low ]		[ + low ]		[ - low ]	
- high	-->	- high	/	+ high	
- round		- round		- round	_____
- front		+ front		+ front	

위의 규칙을 보면, / ㅏ/ 모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 ㅣ/ 모음의 자질은 [- round]를 제외한 나머지 자질 즉, [+ front], [- low], [+ high]인데 그 중에서 왜 유독 [+ front]만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인지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Dependency Phonology와 지배음운론 (Government Phonology) 그리고 Particle Phonology 등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음운의 내적 구조를 [± a]와 같이 설정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 a]와 같은 자질 설정에 있어서는 [+ a]와 [- a]가 모두 동등한 자질인데, 과연 [- a]라는 자질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 ㅏ/라는 음소에 [round]라는 자질이 없는 것이라면, [- round]처럼 표기하여 마치 [- round]라는 자질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음운의 대립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다. 기존의 [± a]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음운의 대립은 '있고 없음'의 절대적 또는 유무적 대립 (privative opposition)인 것이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음운 현상에 있어서 [a]만이 작용할 뿐이지, [- a]에 의한 음운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없는 자질이 음운현상의 요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 a]의 구조에서는 [a 없음] (= [- a])에 의한 음운현상도 인정해야 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을 방지함으로써 문법을 좀더 정확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또 하나는 음운의 내적 구조를 이루는 요소는 그 자체가 발음이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잉여자질을 인정하는 underspecification이나 feature theory와 같은 이론에서는 SPE와는 달리 잉여자질을 해석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완전한 발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음운의 내적 구조는 음운현상을 규칙으로 설명하는 이른바 rule-based 이론에서 주장하는 자질 또는 요소보다 훨씬 적은 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그러한 자질은 그 자체로서 발음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자질 또는 요소는 작게는 음운의 구성요소로서의 일부분일 것이며, 크게는 음운 그 자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의 음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요소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고, 몇 개의 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이 글에서 지배음운론 (Government Phonology)을 중심으로 하여 모음의 내적 구조를 살펴보도록 한다.

## 2. 모음의 구성 요소 (elements for vowels)

지배음운론을 포함하여 음운의 유무 대립을 주장하는 이론에서는 모음은 대개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세 개의 구성요소는 소위 말하는 코너 모음, 즉 [a], [i], [u]로 실현되는 것들로 본다. 이들 구성요소에 대한 표기를 A, I, U로 잡는다면, 모음 [a], [i], [u]는 각각 A, I, U 하나의 요소로 이루어진 모음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요소들이 rule-based 이론에서 주장하는 자질 (feature)과 다른 점은 후자는 그 자체로서 발음이 되지 않는데 비해, 전자는 그 자체가 발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다.

(2)	[a]	[i]	[u]
	x	x	x
	A	I	U

위의 모음들이 하나의 자질로 이루어진데 대해, 아래의 모음들은 이들 요소들의 결합 (fussion)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3)	모음	구성요소
	e/æ	[A, I]
	o/ɔ	[A, U]

A와 I가 결합하면 [e] 또는 [æ]가 되고, A와 U가 결합하면 [o] 또는 [ɔ]가 생성된다. 그런데 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은 대등적 결합이 아니라 요소들 사이에 주종 관계 (dependency relation 또는 asymmetric relation)로 결합한다. 그리하여 (3)에 제시된 4개의 모음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기의 편의상 결합의 주가 되는 요소에 밑줄을 긋도록 한다.

(4)	e	æ	o	ɔ
	x	x	x	x
	<u>A</u>	<u>A</u>	<u>U</u>	<u>U</u>
	<u>I</u>	<u>I</u>	<u>A</u>	<u>A</u>

초기의 지배음운론에 의하면, A는 openness의 특성을 갖고, I는 frontness의 성격을 가지며, U는 roundness의 특성을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위에 제시된 모음과 구성요소들을 음성학적 특성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 (主)가 되는 [i] 모음에 A (Openness)를 더하면, 즉 [i] 모음을 낮추면 [e]가 되고, [a]에 I를 더하면 (즉, 전설화하면) [æ]가 된다. [o] 모음은 [u]에 A를 더하여 낮춘 것이고, [ɔ]는 [a]에 원순성 (= U)을 더한 것이다.

모음을 구성하는 위의 세 요소에 첨가되는 요소가 하나 더 있다. 위의 세 요소들이 모음 삼각도에서 각각의 모서리에 위치한 것이라면, 넷째 번의 요소는 중립적인 상태에서 나는 소리라 할 것이다. 즉, 위의 세 요소의 특성인 openness, frontness, roundness가 없는 상태의 소리이다. 이 요소의 표기는  $\emptyset$ 으로 한다. 우리말의 [i] 또는 [a]와 같은 모음이다.<sup>1)</sup>

(5)	i
	x
	$\emptyset$

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말의 [a]는 [i] 모음으로 발음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두 가지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는 음운현상으로 볼 때 그 구성요소가 단순히  $\emptyset$ 로만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mptyset$ 요소는 대개 강세를 받지 못하는 약모음으로 모음탈락의 음운현상과 관계가 있다. Underspecification 이론에 보이는 default 모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모음의 자질을 표기함에 있어 빈 상태로 두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말의 모음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요소가 아닌 중요소자리에 나타나는  $\emptyset$ 는 표기의 편의상 삽입한 것이다. 모음 [ə]의 경우에는 주요소 위치에  $\emptyset$ 가 나타나는데, [i]에다 openness를 더하여 나타나는 소리이다.

(6)	i	a	u	e	æ	o	ə	i
	x	x	x	x	x	x	x	x
	<u>I</u>	<u>A</u>	<u>U</u>	<u>I</u>	<u>A</u>	<u>U</u>	$\emptyset$	$\emptyset$
	$\emptyset$	$\emptyset$	$\emptyset$	A	I	A	A	$\emptyset$

지배음운론에서는 위와 같은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음운의 변동과 관계된 현상을 설명한다. 음운현상이란 바로 이러한 내적구조의 결합 (composition, fussion) 또는 분리 (decomposition, fission)에 의한 것이다.

### 3. 음운현상

모음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음운 현상으로는 고모음화, 단모음화, 이중모음화, 탈락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위의 설명을 바탕으로 우리말에 나타나는 이러한 음운현상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자.

#### 3.1 고모음화

우리말에 나타나는 고모음화 현상은 방언에서 볼 수 있는 /e/ --> [i]와 /u/ --> [o] 등이다. 그 예로는 /네가/ --> [니가], /계/ --> [기 (끼)], /계집 (계집)/ --> [기집] 그리고 /했소/ --> /했수/, /그리고/ --> [그리구] 등이다. 현대 영어의 meet, boot의 모음이 이전에는 각각 /e:/, /o:/였던 것도 같은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음운현상에 대해 기존의 이론은 [-high]가 [+high]로 바뀐 것이라고 주장하나, 왜 하필이면 이 자질만 변화를 갖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 지배음운론은 종(從) 요소의 탈락이라는 보다 간결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두 요소 중 하나가 탈락한다면 주(主)요소가 아닌 종(從)요소가 탈락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7)	e	-->	i	o	-->	u
	x		x	x		x
	<u>I</u>		I	<u>U</u>		U
	A			A		

### 3.2 단모음화

역시 방언에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로, /평화/ --> [평화], /경상도/ --> [경상도], /쥐/ --> [조], /권투/ --> [곤투] 등의 단모음화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운 현상은 연속된 두 구성요소가 하나로 축약 (fussion)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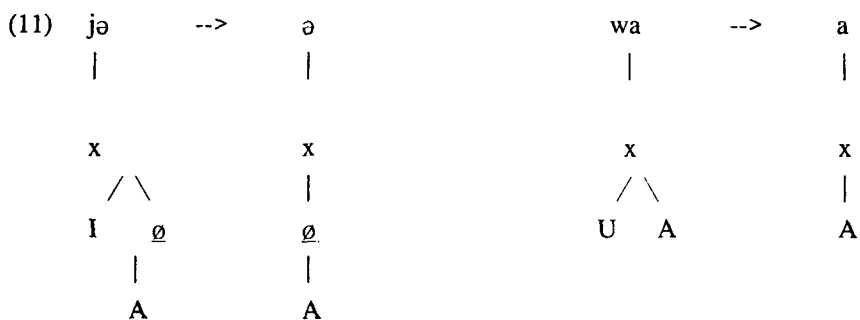
(8)	jə	-->	e	wə <sup>2)</sup>	-->	o
	x		x	x		x
	/ \			/ \		
	I    ø		<u>I</u>	U    ø		<u>U</u>
	A		A	A		A

Zulu 어에서 보이는 *na-inkosi* --> *nenkosi* (and the chief)와 *na-umunti* --> *nomunti* (and the person)이나, 현대 영어의 초기 단계에서 *ɛ*:와 *ɔ*:로 발음되던 *bait*나 *caught* 같은 단어가 그보다 이른 시기에 *ay*와 *aw*로 발음되었던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최명옥 (1982)에 따르면, 월성지역의 방언에 /따시 (湍) + 아도/, /꼬시 (芳) + 아도/ 등이 [따세:도], [꼬세:도]로 나타난다고 한다. /i + a/가 [e:]로 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전통적인 입장에서서는 대개 어미의 /ㅏ/가 모음조화 현상에 의해 /ㅣ/로 바뀐 다음 어간의 모음인 /ㅣ/와 결합하여 활음 /ㅑ/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모음 축약에 의해 [ㅣ]로 발음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지배음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과정은 필요없는 것이다. 이 현상도 축약의 일종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w]는 내적구조가 [u]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 4. 맺음말

이상 지배음운론에서 주장하는 모음의 내적구조와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음운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의 음운의 내적구조에 대한 견해가 단순히 자질의 나열에 의한 것이라면, 지배음운론에서는 구성요소 (element) 개념을 도입하여 문법을 보다 정확하고 간결화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음운현상은 결합 (composition)과 분리 (decomposition)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최명옥 (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Kaye, J. D. & Lowenstamm, J. and J.-R. Vergnaud (1985) *The internal structure of phonological elements: A theory of Charm and Government*. *Phonology Yearbook* 2: 305-328.